

르노코리아 노하우·기술 집약 넓은실내·첨단주행 ‘매력적’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차별화
12.3인치 대형스크린 3개 연결
고속주행에도 소음·진동 미미

르노코리아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오랜기간 공들여 내놓은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르노코리아의 야심작 그랑 콜레오스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매력을 알아봤다.

시승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을 출발해 통영 수산과학관과 거제 농소몽돌해변 일대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진행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넉넉한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특히 차량 곳곳에 로장주(다이아몬드) 엠블럼을 닮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적용해 르노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실내는 운전석에 앉으면 탁 트인 개방감이 주행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운전석 계기반에서부터 동승석 대시보드까지 12.3인치 대형스크린 3개를 연결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3개의 디스플레이는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행 성능도 매력적이다. 고속 구간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인테리어.

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속도를 높여도 엔진음이나 노면 소음, 진동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르노코리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3개의 보스 마이크로폰을 통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스마트크루즈를 설정하고 급커브 구간에 들어서면 차량 스스로 속도를 낮춰 민첩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랑 콜레오스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성이다. 그랑 콜레오스 복합연비는 테크노 트림 기준 15.7km/L다. 경쟁 모델인 쏘렌토 하이브리드(15.5km/L)와 쏘렌토 하이브리드(15.7km/L)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다. 다만 그랑 콜레오스에 적용된 휠이 19인치라는 점에서 17인치 휠을 적용한 쏘렌토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가 4년만에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그랑 콜레오스는 패밀리 SUV로 충분히 매력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 어쩌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 시장에서는 더욱 뜨겁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코리아의 실정 반등을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도심형 수소전기트램 공개

홈페이지 개설... 디자인·제원 등 소개

현대차그룹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의 한축을 차지하는 도심형 수소전기트램이 베일을 벗었다.

현대로템은 9일 수소전기트램의 상세 재원을 알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차량 개발 역사부터 디자인, 기술력 등 주요 특징까지 핵심 내용들을 모두 모은 종합 홍보 플랫폼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수소전기트램의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개발 역사를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 영상, 핵심 기술 사양 및 차량 제원 등 세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해 동작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정화 효과가 있으며, 주행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전력 공급을 위한 별도의 전차선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현대로템이 개발한 수소전기트램은 1회 수소 충전으로 150km 이상 달릴 수 있으며, 충전에 필요한 시간도 15분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 배터리 방식의 트램이 1회 충전으로 20km 이내로만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

달릴 수 있고, 충전에도 1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리성이 뛰어나다.

설계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이며, 열차를 이끄는 구동대와 고정식 부수대차 등 5개 모듈로 구성된다. 수소 탱크 확장을 통해 주행거리도 더 늘릴 수 있으며, 최대 승차 인원은 300명 이상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시민들 곁에서 혁신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며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로 보는 재미를 더한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수소전기트램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개발

갤럭시 스마트폰 적용 예정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악성 메시지를 차단한다.

삼성전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할 예정이다.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은 악성 메시지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기능으로, 불법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팸 메시지로 인한 각종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예방한다.

해당 기능은 원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순차 적용되며 하반기 내 적용 완

료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해당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다.

삼성전자와 KISA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업을 지속해왔다. KISA는 일평균 150만 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으로 판단된 발신 번호와 위험 링크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필터링을 적용해 기능 개발을 진행했다. 올해 3월부터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탑재해 기능 검증을 진행하고 최적화를 완료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장 최호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양극재 사업 추진

中 전구체 제조사 GEM 협력
“통합 밸류체인으로 캐즘 돌파”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에 통합 양극재 사업을 추진하며 캐즘(수요 정체기)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에코프로비메이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EM과 손잡고 양극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GEM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인수해 전구체에 이어 제련업에 본격 진출한다.

에코프로 최대주주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GEM 허개화 회장과 최근 에코프로 오창 본사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임직원들에게 사업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제련-전구체-양극재 등 양극소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돼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양극소재 시장 가격 파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GEM은 인도네시아에 니켈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편 전구체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과거적 혁신 없이 현재의 캐즘을 돌파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과 GEM과 맺어온 돈독한 신뢰를 기반



(왼쪽부터) 왕민 GEM 부회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허개화 GEM 회장이 에코프로 본사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코프로

으로 제련, 전구체, 양극소재를 아우르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 개파로 인한 캐즘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에코프로도 현재에 안주 하다가는 3~4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며 “GEM과 함께 구축하는 통합 밸류 체인이 배터리 캐즘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 소재 산업은 광산, 제련, 전구체, 양극재 등 크게 네 부분의 생태계로 구성되는데 GEM은 니켈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소재에서 세계 1위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협력은 게임 체인지가 될 전망이다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이와 관련 GEM과 실무 작업을 추진할 TF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구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허개화 회장은 GEM이 보유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공장 ‘그린에코니켈’ 사업을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제련업 진출과 IRA 부합하는 니켈 자원 확보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비 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GEM이 보유한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제련과 전구체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기업이 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서 나오는 전구체는 미국의 IRA 규정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TX, 트롤리고 거래액 7000만달러 돌파

중소기업 해외판매창구 각광

런칭 후 운영 8개월 만에 누적거래액 7000만달러를 넘어선 STX의 글로벌 B2B 디지털 플랫폼 TrolleyGo(트롤리고)가 중소기업의 해외판매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 회원을 유치하고 거래 품목을 확장하고 있는 트롤리고와 해외 판로 개척에 목마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지난 6일 기준 트롤리고 누적거래액이 7430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벤더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트롤리고는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거래를 디지털로 전환한 B2B 플랫폼이다. 기업이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제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 유통비용이 없어 기업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해외진출의 징검다리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컴퍼니 ‘라이프 스틸러(LIFE STEALER)’의 ‘옛 호작도(ett hojakdo) 치약’이 기업 고객에게 대량 판매되기도 했다.

STX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